

# 문화공간이름, 신박듀오 리사이틀

개관 5주년 기념콘서트 24일 개최... 피아니스트 신미정·박상욱 연주

문화공간이름 개관 5주년 기념콘서트 신박듀오 리사이틀이 오는 24일 오후 5시에 전주시 효자동에 위치한 문화공간이름에서 열린다.

지난 2018년 6월 23일 개관한 문화공간이름은 지역민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자 설립자인 이사장 또한 꿈을 이룰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다고 하며 이름을 '이름'이라고 지었다고 한다.

지난 5년 동안 문화공간이름에서 지역민들을 위한 많은 공연들을 기획하고 제작했다. 2018년도 러시아 올림피아 민족음악회 스트라 초창공연을 시작으로 세계 3대 기타리스트 중 한명인 에두아르도 페르난데스 초창공연, 독일 슈투트가르트 현악 사중주단의 기획공연 등 전주에서는 만나보기 힘든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수준높은 기획 공연을 올렸다.

또한 지역민 및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족들이 꾸며가는 '패밀리카(樂) 콘서트', 일반인들의 무대위에서의 버킷리스트를 이루어드리는 '이름오픈데이 버킷리스트', 일반인과 전문 연주자가 만들어가는 오페라 '사랑의 묘약', 문화와 씬타는 이터 등 기획공연과 청년들을 위한 'NOW청년PROJECT', 사회배려층을 위한 장애인음악인들의 '열정콘서트'를 진행해 왔으며 지역의 예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전북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을 원로-중견-신인 편으로 나누어 심도있게 조명해 보는 '전북9인9색'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서로 다른 예술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무대위에서 펼치는 인문학 에세이인 '무대 위의 인문학 에세이' 등 그 외 수많은 공연들을 기획하고 지역민들과 예술인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문턱 높지 않은 열린 공연장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신박듀오 리사이틀 포스터

이에 문화공간이름의 개관 5주년을 맞이하며 개관 1주년 기념 콘서트 때에는 연세대 피아노과 유영옥 교수가 연주를 하였고, 이번 5주년 기념 콘서트에는 국내에서는 물론 유럽에서 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신박듀오가 무대를 꾸민다.

신박듀오인 피아니스트 신미정과 박상욱은 국내의 주요 페스티벌 등에 리브콜을 받고있는 인기 피아노 듀오 연주자이다.

2015년 이탈리아 이스키아 섬에서 열린 국제 피아노 듀오 콩쿠르에서 동양인 최초 우승을 거머쥐며 세계 피아노 듀오계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2015년 9월, 피아노 듀오 콩쿠르로서 세계 최고권위의 독일 ARD 국제 음악콩쿠르에서 2위를 수상, 2016년 12월 동양인 피아노 듀오로서는 최초로 제4회 모나코 국제 피아노

듀오 콩쿠르에서 우승했다.

2017년 체코에서 열린 제20회 슈베르트 국제 콩쿠르에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2위 없는 1위로 우승과 더불어 슈베르트 최고해석상인 특별상까지 수상하며 현지 언론을 놀라게 했다.

한국인 최초로 독일 로스토크 국립음악대학에서 피아노 듀오과정 석사와 박사 졸업, 세계 최초의 피아노듀오 교수로 임명된 독일의 세계적인 피아노 듀오 슈텐홀 형제로부터 사사 받았다.

이번 문화공간이름 개관 5주년을 기념할 프로그램 들은 모리스 라벨(Maurice Ravel) '어미 거위' 모음곡(Suite 'Ma mere l'oye'), Gabriel Faure(가브리엘 포레) 네 개의 손을 위한 모음곡, '돌리' Op.56, (Suite 'Dolly' for Piano, 4 hands, Op.56), 카미유 생상스(C. Saint-Saens) 죽음의 무도 (4핸드 편곡 버전) Danse macabre (Arr. For Piano 4 hands), 조르주 비제(Georges Bizet) 네 개의 손을 위한 12개의 소품 ('Jeu d'enfants', 12 pieces for Piano, 4 hands, Op.22)을 연주한다.

현역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며 공연장을 운영한다는 일이 녹록치 않았을 이윤정 이사장은 "지역민들의 사랑으로, 예술인분들의 협력으로 코로나 시국에도 잘 버티며 지금까지 이렇게 해마다 조금씩 성장하는 인정 받는 공연장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예술인들을 비롯한 지역민들과 문화공간이름을 성원해주시는 많은분들 덕분에 좋은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공연을 올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문화공간이름은 지역민들과 지역 예술인들이 꿈을 이루어가며 좋은 공연들을 많이 기획하고 제작하여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에 더욱 힘쓰고 문화가 있는 공간, 문화가 있는 삶"을 선물드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 지역작가와 함께하는 다양한 공예체험

전주공예품전시관, 내달 9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Craft STREET' 운영

지역의 공예작가들이 전주공예품전시관 일원에서 한 달 여간 다양한 공예체험을 진행한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전주공예품전시관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예작가들과 함께 10일부터 내달 9일까지 한 달 여간 매주 토·일요일에 다양한 공예체험 행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죽공예 △도자공예 △한지인형 만들기 등 다양하다.

이번에 진행되는 C-st가칭(Craft STREET)는 '2023 한옥마을 SING STREET' 버스킹 공연 기간에 맞춰 전주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을 대상으로 오목대점점정원에서 진행된다.

한옥마을 쉼터에서 열리는 버스킹 공연을 즐기면서, 동시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분야의 공예작가 50여 명과 함께 섬유, 도자, 목공, 한지 등 다양한 공예품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의 취지는 일상에서 공예를 즐기는 방법으로 직접 체험을 통해 경험을 공유하며, 쓰임새가 좋고 민중세가 아름다운 물건을 곁에 두고 풍요로운 일상을 누리는 데 주안을 뒀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캘리그래피 △캐리커처 △플라그립 민화 그리기 △조명등 만들기 △가

김도영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전주 공예품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이들이 찾고 즐기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Craft STREET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총 10회 진행되며, 프로그램 체험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무료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공예품전시관 홈페이지(www.jonjucraft.or.kr) 또는 공예산업팀(063-281-1610)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 뮤지컬 '영웅' 전주 찾아온다

안중근 생의 마지막 1년 담아... 16-18일 한국소리문화전당서 진행

안중근 의거 10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뮤지컬 '영웅'이 9번째 시즌으로 전주를 찾아온다.

탄탄한 작품성과 정성화 등 배우들의 혼신을 담은 열연이 돋보이는 뮤지컬 '영웅'은 2009년 10월 초연 이래 관객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아 온 국내 대표적인 창작 뮤지컬로, 안중근 의사가 거사를 준비하던 때부터 1910년 32세의 젊은 나이에 순국하기까지 생의 마지막 1년을 사실적으로 담아낸 작품이다.



러시아 연배주의 한 자작나무 숲에서 동지들과 약지를 자르며 조국 독립에 헌신할 것을 결의하던 순간부터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사형집행을 맞이하는 과정들을 무대에 올렸다.

개인의 행복보다는 민족을 택한 독립투사들의 죽음에 깊이 슬퍼하고, 애국적 사명감과 현실적 생존 사이에서 갈등하는 심리 등을 역사의 기록을 통해 탄탄하게 재현했다.

또한, 독립투사들의 뜨거운 열정과 고민 등을 몰입도 높게 표현한 역동적인 안무와 칼군무, 웅장하면서도 세련된 넘버,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무대 미술의 탄탄한 구성은 관객들에게 뮤지컬 '영웅'의 감동을 더해줄 것이다.

특히 오랜 시간 많은 사랑을 받아 온 대표 넘버 '누가 죄인인가'는 이토 히로부미의 죄목을 당당히 열거하는 안중근의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유튜브에서 공연 영상 조회수가 300만 뷰가 넘는 만큼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출연진도 뮤지컬 '영웅'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할일과 애국의 상징, 대한제국 의병군 참모총장 '안중근' 역의 정성화, 양준모, 민우혁은 진정성 있는 연기의 흡인력으로 무대를 압도하고, 안중근과 대척점에 서 있는 '이토 히로부미' 역을 맡은 김도형, 서영주, 최민철은 날카로운 살인 감질한 인상으로 제국주의적 욕망을 가진 캐릭터를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다.

뜨거운 조국애를 품은 조선의 마지막 공녀 '설희' 역의 정재은과 린지의 모습도 눈길을 끈다. 실제 역사에는 없는 가상의 인물이지만, 공연의 중요한 극적 전개를 껴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여기에 앙상블들의 역동적인 군무 연기가 뮤지컬 '영웅'의 무대를 빈틈없이 채우는 배우들의 열정은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김재훈 기자

# 완주·전주 상생 '완전한 하모니' 첫 공연 성료

전주시립합창단, 완주문화예술회관서 공연... 관객석 가득 채워

'완주·전주 상생 협약'에 따른 전주시립합창단의 완주공연이 성황리에 열렸다.

완주문화예술회관에는 완주·전주 상생협력을 위한 합창공연 '완전한 하모니'가 공연장을 가득 채운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완주·전주 상생 협약의 첫 공연인 '완전한 하모니'는 기대감을 나타내듯 공연장 총 478석을 가득 채웠다.

특히, 전주시립합창단과 완주시니어합창단이

공연이 함께하면서 감동을 더했다.

전주시립합창단의 '담쟁이', 'Hire Ma Tov' 곡으로 시작된 공연은 클라리넷 최신하의 연주로 깊이를 더하고, 목창, 중창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완주시니어합창단의 '상록수', '이 작은 나의 빛'으로 하모니를 완성했다.

이번 공연은 완주군과 전주시가 문화예술을 통해 화합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합창은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조화를 이뤄 하모니가 되듯이 완주와 전주는 서로 협력하고 소통한다면 완주·전주는 물론 전라북도 공동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우병기 전주시장은 "전주와 완주가 지역 간 문화 예술 교류를 통해 화합하고, 상호 협력의 기반을 형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주시립합창단 공연은 오는 16일 삼례문화예술회관에서 전주 시립극단의 낭독공연 '내비림소리'가 무대에 오르며, 9월에는 관현악 공연, 10월에는 국악공연으로 완주군을 찾아 올 예정이다. /지방부장

